



지구촌 한류 현장

1 유네스코에 올려져진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황제'

글 김용래 파리 특파원



백건우가 연주를 마친 뒤 지휘자인 앙트르몽과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음악이 힘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좀 더 진실한 대화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2) 씨가 11월 8일 저녁(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열린 '평화 콘서트'에서 혼신을 다한 연주로 1천200여 명의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다.
 백건우는 이날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필리프 앙트르몽(84)과 빈 베토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콘서트 2부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했다.
 백건우의 영혼을 불어넣은 열정적인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네 차례의 커튼콜과 기립박수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이 거장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날 연주회는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대사 이병현)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1천200석 규모의 유네스코 본부 강당은 백건우가 연주하는 '황제'를 들으러 온 파리의 외교가와 문화계 인사들, 친한파 프랑스인들로 가득 차 성황을 이뤘다.
 백건우는 이날 콘서트에 앞서서는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한국 언론과 만나 평화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베토벤의 '황제'를 연주곡으로 택한 이유로 "베토벤은 모든 사람을 껴안은 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이 맞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백건우는 이어 "바람이 있다면 요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진실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길이 아마도 평화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음악이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저 역시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평화와 언젠가 이뤄질 통일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백건우와 빈 베토벤 필하모닉이 앙트르몽의 지휘 아래 협연한 '황제' 외에도 아리랑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한 작품과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도 연주됐다.

2

런던 공연장 울린 안숙선 명창의 '홍보가'

글 박대환 런던 특파원



사진 / 주영 한국문화원 제공

런던에서 홍보가 완창을 선보인 안숙선 명창

국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안숙선 명창이 영국 런던 최고 공연장 중 한 곳에서 '홍보가'를 완창했다.

안숙선 명창은 주영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2018 K-뮤직 페스티벌'의 네 번째 무대 공연자로 나서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런던 사우스뱅크센터에서 공연했다.

영국에서 홍보가 완창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창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판소리에 대한 영국 내 관심을 반영하듯 매진을 기록했다.

영어권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자막이 준비됐으며, 안숙선 명창은 언어의 장벽

을 넘어 관객들과 호흡을 주고받았다.

공연에는 국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 김준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인 고수 조용수가 함께했다.

공연에 앞서 음악 프로듀서이자 작가인 조 보이드가 프리콘서트 토크 시간을 통해 풍부하고 시적인 가사 등 판소리의 매력을 관객에게 소개했다.

주영한국문화원은 영국 현지 프로덕션인 시리즈스(SERIOUS)와 함께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런던에서 'K-뮤직 페스티벌'(K-Music Festival)을 개최했다.

'민요록밴드'로 불리는 '쌍쌍'이 10월 2일 페스티벌의 막을 연 데 이어 안숙선 명창의 홍보가 완창,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과 대금 연주자 김혜림 공연(11월 20일) 등 이 런던의 주요 공연장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3

방탄소년단·트와이스, 일본 오리콘 1위 싹쓸이

글 이은정·박수윤 기자

일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반한(反韓)·혐한(嫌韓) 움직임에도 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오리콘 주간차트 1위를 휩쓸었다.

오리콘뉴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11월 7일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 '페이크 러브/에어플레인 파트.2'(FAKE LOVE/Airplane pt.2)는 주간 싱글차트, 트와이스가 지난 5일 국내에서 낸 미니앨범 '에스 오어 예스'(YES or YES)는 주간 앨범차트 1위에 각각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오리콘 포인트(오리콘이 음반 판매량을 바탕으로 매기는 점수) 45만4천 829점을, 트와이스는 약 3만3천점을 획득했다. 방탄소년단은 해외 아티스트로는 처음

으로 발매 첫 주 40만 포인트를 넘겼다. 트와이스는 현지에서 발매한 일본어 앨범이 아닌 한국어 앨범으로 주간차트 1위에 처음 올랐다.

두 팀의 동시 1위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일본 음악 방송 출연 취소로 불거진 일본 극우 세력의 혐한 움직임과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줬다. 일본에서 3차 한류를 견인한 이들의 인

기는 일부의 반한 정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지난 10월 일본의 한 매체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를 문제 삼아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 논란이 일자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은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취소해 파문이 일었다.

방탄소년단은 11월 13~14일 도쿄돔에서 38만 명 규모의 '러브 유어셀프' 일본 돔투어를 시작했다. 팬들은 첫날 일찍부터 공연장에 몰려와 긴 줄을 섰고, 공연장 주변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 판매소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트와이스도 내년 일본에서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돔 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4

호주 멜버른 달군 '한류' 코리아 페스티벌에 5만명 참가

글 왕길한 기자

주호주대사관 멜버른 분관은 11월 10~11일(현지시간) 퀸스 브릿지 광장에서 열린 '2018 멜버른 코리아 위크 페스티벌'에 5만여 명이 찾아와 한류를 즐겼다고 밝혔다. 분관은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빅토리아주에서 영향력 있는 다문화 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호주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페스티벌은 이틀 동안 매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해금 연주,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등 우리의 전통 공연과 태권도 시범, 힙합댄스 '고릴라 크루'와 코미디 그룹 '옹알스' 등의 무대가 이어졌고, K팝 댄스와 K팝 DJ가 한류 열기를 달궜다.

광장 한편에서는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가 마련됐고, 한식 쿠킹 클래스도 눈길을 모았다.

특히 떡갈비, 삼겹살, 닭강정 등이 인기를 끌어 한

식 세계화를 실감할 수 있었고, 한복 입어보기와 투호,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 부스에는 이를 체험하려는 시민들이 행사 기간 내내 장사진을 이뤘다.

현지 한국어 학교와 한국어 교사회가 마련한 탈 만들기, 한지 체험 부스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분관은 설명했다.

분관 관계자는 "올해 페스티벌은 우리 문화와 함께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회원국의 문화 공연을 접목했다"며 "다문화 호주 사회에서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조화로운 화합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멜버른 퀸스 브릿지 광장에서 펼쳐지는 사물놀이 공연

사진 / 멜버른 분관 제공

5

싱가포르서 베일 벗은 드라마 '킹덤' 외신기자들 "제대로 미쳤다" 호평

글 이정현 기자

"이 스토리가 드라마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만화 이야기('신의 나라')로 먼저 만들었는데 넷플릭스를 만나 드라마로도 실현됐네요."

넷플릭스의 첫 한국 드라마 '킹덤' 대본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는 11월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 베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 왓츠 넥스트: 아시아'(Netflix See What's Next: Asia)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킹덤'은 15~16세기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죽은 왕이 되 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조선의 끝에 당도, 굶주림 끝에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김 작가는 "넷플릭스와의 협업, 영화감독(김성훈)과의 협업 등 모든 게 처음이라 초반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신선한 작업이었다. 권력과 배고픔이 어떻게 역병에 작용했는지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전날 밤 캐피털 시어터에서 '킹덤' 1·2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상영회는 아시아의 수심 가지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가장 힘을 주고 싶은 단 한 편을 골라 이뤄지는데, 그만큼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에 조선 시대 고즈넉한 궁궐 안팎 풍경 속에서 등장하는 격렬한 몸짓의 좀비들은 말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간 듯했다.

서사를 쌓는 데 주력한 1부 후에는 '예의를 차린' 박수가 나왔지만 좀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부 상영 후에는 외신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외신기자들은 저마다 "원더풀", "완전히 미쳤다"는 말을 쏟아냈다.

인도에서 온 오렌지뉴스의 카리사 아이리스 랜드 기사는 연합뉴스에 "1부에서는 비교적 잔잔하다고 생각했는데 2부에서는 엄청난 몰입감을 느꼈다. 좀비들이 충격적일만큼 잔인하게 그려졌는데 신선한 흡입력이 있었다"며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된 '킹덤'은 내년 1월 25일 190여개 국에서 동시 방영된다.



1 '킹덤' 스틸컷
2 (왼쪽부터) '킹덤'의 류승룡, 주지훈, 김은희 작가, 김성훈 감독

6

한식·국악·한지 이탈리아 밀라노의 밤 수놓아

글 현윤경 밀라노 특파원



1 10월 3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18 밀라노 한국의 밤' 행사에서 유혜란 주밀라노 총영사(오른쪽)가 필리포 델 코르노 밀라노 부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2 참석자들이 한식을 맛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문화 중심지인 밀라노에서 한식부터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한지 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밀라노총영사관은 10월 31일(현지시간) 밀라노 시내의 유서 깊은 건물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에서 국경일 리셉션을 겸한 '2018 밀라노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필리포 델 코르노 밀라노 시 문화담당 부시장 등 밀라노 시의 주요 인사와 현지 주재 외교단, 남호승 이탈리아한인회장을 비롯한 밀라노 한인 사회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유혜란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1884년 수교 이래 변함없는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소개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 오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델 코르노 부시장은 "최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양국 관계는 특히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기점으로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예술과 음악, 디자인, 패션 등 문화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한 양국이 앞으로 더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탈리아 음식과 함께 불고기, 잡채, 김밥 등 한식이 제공돼 한국인들은 물론 이탈리아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특히 밀라노 북부 레코에 자리한 미술랭 원스타 레스토랑인 '알 포르티출로 84'를 경영하는 스타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한국 전통 장류를 활용해 선보인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를 섞은 퓨전 메뉴 5가지는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행사장 곳곳을 장식한 한지 작가 김말희(이탈리아 이름 티미 킴)의 따뜻한 느낌의 한지 가구와 공예품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자유롭 한인 예술인으로 구성된 국악공연단 '울림'이 선사한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사진 / 김경호 작가 제공

- 1 사경을 제작 중인 김경호 작가
- 2 김경호 작가가 제작한 초전법륜만다라



사진 / 김경호 작가 제공

40여 년간 사경(寫經)에 매달려온 외길 김경호(55) 한국전통사경연구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사경'은 수행과 기복을 위해 경전을 필사하는 행위로, 불교 수행의 꽃이자 종합예술로 꼽힌다. 합천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을 비롯한 다양한 목판과 금속활자를 제작하는 데 기초가 되기도 했다.

미 뉴욕주 비영리 문화단체인 뉴욕한국문화재단은 11월 2일(현지시간) 저녁 뉴욕 로어 맨해튼 '티베트 하우스'에서 김경호 원장의 한국 전통사경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3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티베트 하우스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한국·티베트 작가 초청전'에 앞서 진행된 전시회 초대작가 특강으로, 한국사경 1천700년의 역사와 전통, 수행법과 예술성을 뉴욕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는 티베트 문화와 연계해 한국 전통사경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뉴욕한국문화재단 김형근 디렉터는 "사경은 고려청자, 불화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의 한 축"이라며 "사경을 토대로 한국이 당시 인쇄

중주국으로 발전한 문화사적 의미를 알린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경호 원장은 이번 특강에서 '금니사경' 제작 동영상 등을 통해 0.1mm 붓끝에 집중하는 종합 예술로서 한국 전통사경의 특징을 설명하고 기독교 성경사경·이슬람교 코란사경과 비교해 고려 불교 사경의 진면목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사경은 몸과 마음, 재료·도구의 조화를 이루는 삼매 속에서 이뤄지는 예술"이라며 "사경은 목판·금속활자 등 인쇄문화 개발을 촉발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통사경 기능전승자'로, 여러 전시회와 저서들을 통해 전통사경의 계승·발전과 알리기에 매진해왔다.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도 수차례 사경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뉴욕 맨해튼 갤러리 호(HO)에서 자신의 역작인 '감지금니 일불일자 화엄경 약찬게'와 '감지금니 7층보탑 법화경 견보탑품'을 선보였다. ❶

7

'금빛으로 빛어낸 佛心' 고려사경 뉴욕 맨해튼에 선보인다

글 이준서 뉴욕 특파원